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꽃구경은 ‘철원 고석정 꽃밭’에서” 6월 말까지 ‘고석정 꽃밭’ 운영...야간조명 설치

“봄이 되면 꽃은 서로 경쟁하듯 피어납니다. 노란 유채꽃이 사랑살랑.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마음껏 뻗으면 가슴은 시원하고 눈은 편안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듯 아름답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경기 구리시 한강공원의 유채꽃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 근교에 위치한 강원 철원군 동송읍 고석정 꽃밭의 유채꽃이다. 철원 유채꽃은 기후 환경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오래 볼 수 있다. 유채꽃 꽃밭은 ‘쾌활 명랑’이다. 상쾌한 기분으로 노란 유채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황금이 눈앞에 펼쳐져 부자가 된 것처럼 유쾌한 기분이 든다. 유채꽃밭에서 사랑을 고백하면 이뤄진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군사 훈련장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군은 옛 포 사격장에 2017년부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평화를 상징하는 꽃밭으로 조성했다. 올해는 상춘객 발걸음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고석정 일원에 15ha 규모 꽃밭을 조성했다. 상반기 고석정 꽃밭은 ‘당신은 내게 정말 아름다워요’를 주제로 회복과 치유, 힐링 공간으로 스토리텔링 해 유채와 꽃양귀비, 수레국화, 가우라, 베베나, 호밀, 금어초, 샬비어, 석죽 등으로 꾸몄다. 특히 6월부터 야간 조명을 설치해 봄밤의 꽃밭을 선사한다. 탐방객의 신청 곡과 사연을 소개하는 공개방송과 거리공연, 소셜미디어 감



1 고석정 꽃밭 잔디광장에서 출발해 1.2km 코스를 운행하는 '강릉 열차' 2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성을 자극하는 포토존, 먹거리 부스, 강릉 열차 등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고석정 꽃밭에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개화 시기에 따라 입장료를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꽃구경과 함께 주상절리길 산책 코스로

철원은 고석정 꽃밭과 함께 다양한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관광지로는 한탄강 비경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주상절리길’이다. 총 길이 3.6km·폭 1.5m의 주상절리길은 한탄강 협곡과 화산지형을 비경을 품은 순담계곡에서 절벽을 따라 걷는 잔도로 관광객 발걸음을 모으고 있다. 순담 매표소와 드르니 매표소를 통해 입장할 수 있다. 입장료는 성인 1인 기준 1만 원이며, 이중 절반은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한탄강 절경과 철원 용암대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지역 대표 현수인 ‘은하수교’도 매력적인 관광지다. 주차장에서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인 DMZ 마켓이 11월 말까지 매주 토·일요일 열린다.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는 안보 관광도 철원만의 특별한 체험이 될 수 있다. 군 주요 관광지는 매주 화요일 휴무로 여행을 계획할 때 참고하면 좋다. ●



안정속에 변혁, 희망중심 철원건설 철원관광의 르네상스 시대 열다

철원의 新(신) 삼각 관광벨트 조성

① 한탄강 관광벨트

-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 철원고석정 꽃밭 단지
- 철원한탄강 은하수교 전망대
- 철원한탄강 물윗길

소이산 모노레일

② DMZ 관광벨트

- 철원역사문화공원
- 철원태봉국 궁예왕역사공원
- 소이산 모노레일, 지하병커 개발
- 국제두루미평화타운

③ 생태평화 관광벨트

- DMZ생태평화공원(생창리)
- 용양호 생태탐방로
- 화강취리공원
- 철원두루미 숲속문화촌

용양호 생태공원

햇불전망대

